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오전 6:28

김재식 지음. 위즈덤 하우스

✓ 1장.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순 없어

- 외로움이란 혼자 있을때 오는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 자주 온다. 외롭다는 건 혼자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의 갈증이다. 그래서 외로울때는 사람에게 기대려 하기보다 나를 위한 것들을 찾는다. 나에게 집중하며 나와함께 시간을 보낸다.
- ☐ 아 ㅎㅎ 그래서 내가 외롭지 않은 거구나. ㅎㅎ 친구도 없고, 정말 나 혼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마음.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공부, 독서, 내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내모습을 그리며 매일 노력하는 내 모습에 하루하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나의 행복한 하루. 저에게 늘 건강함과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좋은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하는 말에 너무 귀기울이지 마라. 어떤 사람은 나를 동그라미로 보고 누구는 네모로 본들 신경쓰지마. 굳이 나서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 나를 어떻게 보든 난 나일 뿐이고,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일 뿐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
-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사소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자주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아.
- **관계의 신호등. 관계의 안전거리**
서로가 부딪치지 않기 위한 안전거리. 너무 가까움으로 인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부딪치지 않고 살 수는없지만 부딪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 나쁜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을 끊어내라.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 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노력해라.
- 행복한 순간보다 슬픔을 함께해주는 사람이 더 고맙다. 그러니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라.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에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 계속해서 잘할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잘해주는 척 하지마
- **관계의 키를 쥐는 방법**
손해보지 않기 위해 받은 만큼 주겠다고 다짐하지만, 웅졸해진 만큼 덜 주게 된다. 받은 만큼만 주겠다는 건 더 주는것보다 쉽지 않다.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더 편하게 잔다는 말이 있듯 게임에서도 무조건 많이 따려는 사람보다 때론 잃기도 하는 사람이 먼저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아쉬운 건 앓아 있

는 사람이다. 많이 받은 사람보다 많이 준 사람의 마음이 더 가벼울수 밖에 없다. 그러니 바보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계산하지 말고 받은 것보다 더 주면 그 관계의 키는 내가 쥐게 된다. 아이어가는 것도, 떠나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결론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미리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자.
-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며 보낸 순간들이 모여 모두에게 모여 뽕족한 상처를 남긴다.
- 계속해서 움직여야 넘어지지 않는다. 현재가 불안하면 움직여야 한다. 할 일이 있는데 미루고 미루면서 불안감만 키우는 건 옳지 않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해가 겹겹이 쌓이면 좀처럼 찾기 어려운 화석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긴다.
-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내게 꼭 맞는 사람도 없어, 단지 서로 노력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 함께한 노력 때문에 빛나는 거다.
변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변함 없을 때 비로소 소중해지는 거다. 처음 그 마음 변하지 말자고 말하지만 세월 속에 달라지는 우리처럼 그 마음 또한 서로를 향해 맞춰 간다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삶속에서 소중하게 빛날거야.
- 내 행복은 내가 채우는 것이지 누군가 채워주는 게 아니다. 가진 게 없어 줄 것이 없으면 노력 없이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라. 멍청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랑하기까 모르는 척할 뿐이다.
- 내가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한 부탁을 듣고 망설이지 마라.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즉시 거절하라.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다,
- 지금 내가 해야 할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는 것이다. 서로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말이다.
-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면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 _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 누군가 너에게 아프다고 말하면 나도 아파봐서 안다고 말하지 마라. 네 얘기를 듣거 싶은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다. 위로는 꼭 말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 상처받은 것에 대해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마라.
상처에 대한 보상보다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복수보다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 좋은 관계를 위해선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것에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냉철한 모습을 보여줘라.
- 만약 무언가 잘못된 연 때무네 나 스스로 고통받고 다음을 이어갈 수 없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라. 내 연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한 것들이다.
- 한정된 시간을 많은 곳에 조금씩 나누어 보내지 말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자.
-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먼저 다가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엄청난 잘못을 한 게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오해는 대화로 풀어라. 오해는 상대를 죽이는 행위다.

- 서로 이해하며 양보하지만,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한다면 돌아서야 한다.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오래 참는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 서로에게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는 건 지옥에 사는 것과 같다.
- 함께 한다,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으며 다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함께 있는 것 같아도 각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웃으면서 인사하면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대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들도 나에게 웃음을 보이며 응답한다.

☐ 인간관계에 시작과 끝은 인사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것이 진짜 인격이다. 아무도 안보는 곳에서 선한마음을 실천하는 것. 먼저 웃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런 사람 향기 난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자.

- 상처의 역설

상처받고 상처주는 사람에게 익숙해지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것에 익숙해진다.

안맞는 건 어쩔 수 없어

-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맞추면서 살면 편하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듯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능하지 않은 것에 마음쓰며 혼자서 기회를 줬다가 기대를 했다가 상처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어야 나도 인정받을 수 있다.
맞지 않으면 어쩔수 없는 일이다. **나도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서 남을 바꾸려고 애쓰면서 사는 건 이기적이다.**

척하지 말기

- 없으면 없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살자.
없는데 있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하며 사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
없다고 모른다고 무시하면 안 보면 그만이다.
없어도 나눌 수 있고 모르면 도와주는 사람과 벗어나며 사는 것이 부족해도 더 행복하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

-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말에 무게가 없기 때문이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뒤돌아 섰을 때 생각이 많아지는 건 말을 더 많이 한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피곤해진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게 더 사람의 마음을 끌리게 한다.
- 좋은 말만 하며 살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말은 삼켜라. 그래야 나도 누군가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준대로 고스란히 받는다.

- 싫으면 내가 떠나면 그만이고, 보고 싶지 않으면 안보면 된다. 싫은 것을 계속 보면서 싫다고 화를 내봐야 내 마음만 병이 든다. 아픈 말을 하면 내가 아프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 2장.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 세상의 모든 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는 걸 명심해. 기회는 노력해야 온다.
-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결과에 마음 아파하지마. 삶의 중요한 순간에 집중했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기회는 또 돌아오니까.
- 이별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겠는 것을 참고 견디려고 노력하지마라.
헤어지는게 잘못된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힘들게 참아내는 것이 잘못된 거다. 언제나 나 나를 위한 선택이 먼저임을 기억하자.
- 내가 스스로에게 당당할 때 그 누군가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 나를 먼저 보듬어주고 인정하며 사랑하자. 누군가에게 인정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 빛을 등지고 걷지 마. 앞을 바로 봐봐. 저마다 저렇게 자기만의 아름다운 빛을 자랑하기 바쁘잖아.
-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나를 위해 살아가자.
- 뿌리깊은 나무 같은 사라밍 되자. 그래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때로는 기분 좋은 바람을 전할 수 있을테니까.
-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 다만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 것. 나는 나일 뿐이다. 내 멋대로 살면 된다.
- 스스로를 과대평가 할 필요는 없지만 쇠고평가하는 것보다는 낫다. 사람의 가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로 개인의 가치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 본인의 가능성을 믿고 시작하자.
- 내가 점점 못생겨지는 이유는 내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 언젠든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나를 살피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자. 나를 돌보는 일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과 같다.**
-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다.
- 내가 먼저 웃어야 내를 보며 웃는 상대의 웃음을 밝은 웃음으로 받아줄 수 있다.
- 생각한 대로 된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다.
힘들어서 놓았다면 다시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 ☐ 생각한대로 살게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온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 내 몸에서 보내면 신호를 감추거나 참지 않고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해야 마음에 고장이 없다.

- 시간은 약이 아니야.

시간이 약이야 이 또한 지나가, 라고 말하며 모든 일은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해내거나 헤쳐 나가는 건 나 자신이다.

포장지보다 알맹이가 중요해

-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자존감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중요한 건 포장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이다.

3장. 사랑은 그 사람을 배우는 거야

- 당신의 진심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뛰게 한다. 기분대로 내뱉지 말고 **마음을 담아 예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자.**
- 무엇이든 포기할 게 아니라면 단정 지어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 한 번 깨진 그릇은 붙이기 어려워
누군가를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현재의 관계를 잘 유지해나가는 게 더 어려운 거다.
종종 한 번 놓아버린 손을 다시 잡지만 그게 곧 다시 힘들어지는 이유일지도 몰라.

☐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 소중한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 눈에 안 보인다. 사랑 참 쉽지. 눈에 보이거든. 나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에서. 그런데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든 아니든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내가 사랑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망설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잠시 변하는 척 할 뿐이다.

- 온 힘을 다해야 후회가 없어.
- 나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네게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처를 주기만 한다면 사랑이 아닌 것이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질 거라 희망을 가지며 견딜 게 아니라, 힘들어도 지금 행복해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그 사람은 시간이 없는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 집착은 언제나 무섭다. 의미를 부여하고 매여 있으면 고통이 따른다> 사랑이 언제나 아픈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고통은 사랑이 아닌 것이다.
- 혼자서 잘해주고 슬퍼하지 마라. 혼자 하는 사랑은 늘 혼자 아픔을 감당하게 된다.

- 처음의 그 어떤 순간에 사랑이라고 느꼈든 지금의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면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놓아줘. 그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일지 모르니까.

✓ 4장. 지금은 나를 돌보는 시간

-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내가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지, 또 잘한 일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일은 없었는지 내게 안부를 묻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기.
- 보통 **삶이 망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려 놓지 못하는 데 있다**. 그동안의 정성과 시간이 아까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야. **분명히 일어서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결국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끝이 난다.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했다는 후회만 남을 뿐이다.
-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술이나 친구에 의존하지 말고 철저히 혼자가 돼라.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면 집 밖으로 나가 멀리까지 내다보고 걸으며 지칠 때까지 생각해라. 그리고 내일은 없다는 마음으로 충분히 잠을 자라. 반드시 밝은 내일이 올테니까.
- **지금**을 온전히 살지 않으면 행복했던 때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
지금 행복해야 그때로도 돌아갈 수 있다.
- **행복이란, 가득찬 게 아니라 제로의 상태가 아닐까. 행복이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잠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내일 일에 대한 깊은 고민 때문도 아니고 누군간와의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들로 들떠 있는 불안한 마음도 아닌 상태. 더 남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밀렸다고 생각할 것도 아닌 그냥 **제로의 상태**.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 밤.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다.
-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이유는 자꾸 두리번 거리기 때문이다.
- 정해진 시간 내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어떤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일 것이다.
- 그리운 시절이 있었다는 건 행복한 일이야. 그러나 너무 그 시절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리워지라 오늘을 충분히 즐겨. 지금 그리워하는 그 시절이 잊혀지도록 말아야.
- 항상 지금을 살아라. 곁에 있는 사람을 지켜라.
-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두지 말고,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않기.
- 막연한 꿈을 꾸기보다 오늘 하루에 감사할 수 있기를. 먼 곳을 바라보기보다 가까이 있는 것에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기 보다 지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게 된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멀리 가려고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언제나 늘 나와 가까이 있다.
-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를 보면 참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에서의 관점일 뿐이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후회는 미련스럽다.

- 괜찮지 않은 건, 괜찮지 않은대로 아픈건, 그냥 아픈대로 놓아둬.
그냥 그대로 두어도 괜찮아질 건 괜찮아지고 나아질 건 나아지게 된다.
- 때론 피하는 게 상책이야.
세상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건 내가 그런 것들만 보고 듣고 살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밝은 소식만 보려고 노력해. 어떤 것들을 주변에 두느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 나와 상관없는, 모르고 살아가도 되는 것들에 대해 쓸데없는 감정을 쏟아내며 살지 않도록 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닫아야 충분히 괜찮은 시간을, 더 행복한 나를 만날 수 있다.
- 각자의 삶에서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 덜 가지더라도 자유로울 것.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마라. 가진만큼 지켜야 할 게 많아지는 법이다. 그것들을 돌보고 책임질 수 없다면 차라치 없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가진게 많다는 것은 잃을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지키려 애쓰며 사는 사람보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엇을 더 자유로운 법이다
- 지나친 걱정은 지금을 의미 없이 지나치게 할 뿐이다.
-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당장은 불안해도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쉬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더 낫다.
- 언제나 나를 지키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 더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더 가지려고 멈추어 서서 망설이지 말고 멀리 가려고 나를 버려가며 고통 속에 살지 않기를.
언제나 나를 지키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 망각이라는 선물.
기억이 나지 않는 건 어쩌면 좋은 일이야.
잊혀지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지 몰라.
- 길을 몰라 헤메고 있다며 내가 갈일을 스스로 만들면 된다. 우왕좌왕 하기보단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쓰는게 더 낫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을꺼야., 가보지 않고 망설이는 동안에도 똑같이 시간은 가고 가보고 아니면 다시 방향을 틀면 되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나 자신을 책임질 줄 안다는 것.
그렇게 세상의 모든 어른 아이들이 낯선 길 위를 여행 중인 것이다.
- 가정법은 의미가 없다.
무엇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했더라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보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떤 미래가 다가 올지를 생각하며 보내야 한다.

- 일기일회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거나 되돌릴 수 없는 건 시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소중한 건, 똑같은 시간이 두 번은 없기 때문이야.

살면서 엄마가 해준 말

-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도록 하면서 살아라. 나머지는 취미로 하면 된다. 세상에 열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법이다. 너무 많은 것에 재능이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본인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결국에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어 밥을 굶게 된다.
- 남들이 하는 기분 좋은 소리는 흘려들여라. 사람들은 내 기분을 맞춰 이용하기 위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말에 우쭐 할 필요도 없고 장단 맞춰 흔들리지 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 자신이다.
- 언제나 좋은 것만 보고 긍정의 말만 듣도록 노력하라. 사람은 어떤 것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 험한 말을 하는 사람과 기분 나쁜 뉴스들을 가까이하면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된다.
-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좇지 말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고맙고 귀하게 여겨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 etc

- 사람들은 내가 잘살면 꼬인다. 하지만 어려워지면 바람처럼 모두 사라진다.
사람들이 하는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언제나 나를 잃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며 나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어렵게 손을 맞잡았다가도 한쪽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쉽게 끝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어려운 만큼 가볍고, 소중한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 누군가를 곁에 두려 붙잡지 말고 내게 좋은 사람에게에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 무엇보다 먼저 나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느낀점

- 너무 공감이 가는 글들이 많다. 시 처럼 쓰였는데 필사각이 너무 많아.~ ㅎㅎ 나도 이렇게 글을 써보고 싶다.
- 4장. 행복과 관련된 글들이 와닿는다. 이부분으로 독서감상문 쓰자.

▼ 요약

-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일 뿐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
- 언제든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나를 살피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자. 나를 돌보는 일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과 같다.
- 행복이란, 가득찬 게 아니라 **제로의 상태**가 아닐까. 행복이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잠들 수 있는것이 아닐까.